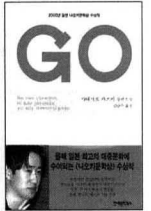


내 또래, 우리 젊은이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연애?

책장을 넘길 때마다 가슴이 팔딱거리고 갈수록 알팍해지는 남은 뒷장이 못내 아쉬운, 마지막 책장을 탁 덮은 후에는 오히려 무수히 솟구쳐나는 질문들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그런 책. 이런 책은 쉽게 만날 수 없지요. 아침저녁으로 햇볕에 보송보송 말린 듯한 푸른 바람이 넘실대는 9월,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재미와 깊이를 동시에 안겨줄 멋진 연애소설 두 편을 추천합니다.

《Go》 가네시로가즈키 지음 | 김난주 옮김 | 현대문학북스 | 256쪽 | 값 7,500원

2000년, 일본의 대중문학상인 나오키문학상을 받은 이 작품은 재일교포 3세인 작가의 자전적 성장소설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란 재일한국인 스키하라. 그는 프로복서로서 철저한 마르크스주의자였던 아버지로 인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조총련계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의 장래를 걱정한 아버지가 민단으로 옮기면서 스키하라는 아버지 뜻에 따라 한국 국적을 갖는 대신, 자신의 뜻에 따라 일본인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지요. 이때부터 일본 아이들과의 전쟁은 본격화됩니다. 이지메가 사회문제가 되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 그 대상이 조총련계나 재일한국인이었을 때, 그것은 죽음을 넘나들어야 할 정도로 무섭고 끈질기며 비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키하라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억센 주먹과 빠른 발, 그리고 그의 자존심과 승부근성이 일궈 놓은 단단한 정신력으로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상대방을 차례차례 쓰러뜨리고 맙니다. 이때 만나게 되는 일본소녀. 그녀는 스키하라의 그런 남성성(?)에 정신없이 빠져들게 되고, 그 역시 도발적이고 재기발랄한 그녀의 매력에 폭 빠져들게 되지요.



이 작품은 연애소설로 읽기에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감각적이고 경쾌합니다. 저자 역시, “내 또래 재일한국인 젊은이에게 중요한 문제는 국적도, 민족도 아닌 연애”라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읽는 동안의 흥분이 가신 뒤 되돌아서 이 작품을 떠올릴 때면, 천천히 슬픔이 고여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술한 질문들이 솟구쳐나지요. 민족이란 무엇인가, 한 개인이 사회적 그물망을 온전히 벗어나는 일은 가능한 것인가, 스키하라처럼 강하지 못한 재일한국인들은 일본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남과 북은 왜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눠 만인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가, 사랑은 얼마나 힘이 셀까 등등. 중학교 2학년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읽기를 권합니다.

《바둑 두는 여자》 산사지음 | 이상해 옮김 | 현대문학북스 | 318쪽 | 값 8,800원

“2001년,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가장 읽고 싶어하는 소설에 수여하는 <공쿠르 데 리쉴앙 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젊은 중국계 프랑스 작가인 산사의 세 번째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격변과 혼란의 1930년대 중국, 이제 막 성에 눈을 뜨기 시작하며 자아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열 여섯의 중국 소녀와 싸늘한 제국주의의 옷을 걸치고서도 섬세하고 순수한 영혼을 잃지 않는 젊은 일본군 장교의 운명적 사랑을 그려낸 것입니다. 그들은 일본의 점령 아래 있던 만주의 한 작은 도시 첸훙 광장에서 우연히 만나 바둑을 두게 됩니다. 서로의 이름도 나이도 국적도 모른 채, 그들은 매일같이 만나 땀을 흘리고, 쫓고 달아나며, 흑돌과 백돌의 징검다리를 밟고서 서로의 영혼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지요. 그러나 전쟁은 그들의 사랑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관능과 이성, 발산과 절제, 개인과 사회, 전통과 현대의 팽팽한 대결구도는 흑과 백의 바둑판 위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빠른 속도로 숨막히게 전개됩니다. 아껴두고 조금씩 읽고 싶은 책, 그러나 오감을 자극하는 문장의 매력에 빠져 결코 속도를 늦출 수 없는 책. 중학교 3학년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읽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